2014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인문계열) 입학시험 문제지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아래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책임자인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다가 이스라엘 비밀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되어 예루살렘의 법정에 서게 되었다.

검사: 피고인의 본명은 칼 아돌프 아이히만, 1939년에서 1945년까지 나치스 계획의 집행 책임자로서 유태인 학살을 지휘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증인: 제가 본 피고인은 유태인을 미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유태인 이민자들을 위해 직업학교도 세우는 등 개인적으로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검사: 그렇다면 왜 유태인 학살을 지휘했습니까?

아이히만: 저는 단지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것은 저의 임무였으며, 저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을 뿐입니다.

검사: 수백만 명의 아이들과 남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요?

아이히만: 제가 만약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시문 (나)

포스터 속에 들어 앉아
비둘기는 자꾸만 곁눈질을 한다.
포스터 속에 오래 들어 앉아 있으면
비둘기의 습성(習性)도 왠만치는 변한다.
비둘기가 노니던 한때의 지붕마루를
나는 알고 있는데
정말이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비어 버린 집통만
비바람에 털럭이며 삭고 있을 뿐이다.
포스터 속에는
비둘기가 날아 볼 하늘이 없다.
마셔 볼 공기(空氣)가 없다.
답답하면 주리도 틀어 보지만
그저 열없는 일
그의 몸을 짓구겨
누가 찢어 보아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
불 속에 던져 살라 보아도
잿가루 하나 남지 않는다.
그는 찍어낸 포스터
수많은 복사(複寫) 속에
다친 데 하나 없이 들어 앉아 있으니
차라리 죽지 못해 탈이다.

(뒷장에 계속)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제시문 (다)

(트로이아의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 뤼카온은 아킬레우스에게 사로잡힌 뒤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그에게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말한다.)

"자. 친구여, 그대도 죽을지어다. 왜 이렇게 비탄에 빠져 있는가?
그대보다 훨씬 훌륭한 파트로클로스*도 죽었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나 또한 얼마나 잘 생기고 큰지?
나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고, 나를 낳아 주신 어머니는 여신이시다.
하지만 내 위에도 죽음과 강력한 운명이 걸려 있다.
누군가가 창이나 또는 시위를 떠난 화살로
나를 맞혀 싸움터에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갈
아침이나 저녁이나 한낮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다."
이렇게 말하자 뤼카온은 무릎과 심장이 풀어져
잡았던 창을 놓고 두 팔을 벌리며 주저앉았다.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날카로운 칼을 빼어
목 옆 쇄골을 내리쳤다.
……[중략]……
검은 피가 흘러내려 대지를 적셨다.

* 파트로클로스: 아킬레우스의 절친한 친구. 트로이아의 영웅인 헥토르에게 살해당했다.

제시문 (라)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인 에버렛 워딩턴은 1955년 어느 날 어머니가 무단 침입한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용서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학자인 워딩턴이었으나 그는 사건 현장을 보고 몸서리를 치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하고 소리쳤다. 그는 분노 속에서 강도들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하면서 자신의 폭력적 본성과 죄성(罪性)을 깨달았다. "나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워딩턴 교수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누군가에게 살의를 품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딱한 아이들도 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후 그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깊은 고뇌와 연구로 이어졌다. 그는 현재 교육과 연구, 저술과 상담을 통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세를 갖도록 돕고 있다.

〈문제 1〉 '공감' 개념을 실마리로 삼아 제시문 (가), (나), (다)를 읽을 수 있다. (가)의 아이히만 및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비교하여 (다)의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특징들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 '공감' (sympathy)이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 본래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 는 뜻이다.

〈문제 2〉 '상상', '주체', '폭력' 개념을 모두 사용하여 '공감'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제시문 (가), (다), (라)의 사례를 활용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